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현우* · 김유영 · 남현우

순천향대학교(충남 아산시 신창면)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부부나이차, 입국이유, 종교유무, 결혼생활기간, 취업유무, 경제수준, 한국문화적응정도, 한국어능력, 자아탄력성으로 설정하였다. 가정적 변인으로는 결혼방식, 결혼이유, 남편의 아내모국어 이해정도, 남편의 아내모국어문화이해정도, 결혼생활만족도, 자녀유무, 재산관리주체, 양육효능감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변인으로는 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인지여부,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이용경험정도, 사회적 참여모임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256명이며 중다선형회귀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아탄력성, 결혼생활기간, 한국문화적응정도, 경제수준, 가정적 변인으로는 양육효능감, 결혼생활만족도, 결혼방식- 타인의 소개 없이, 사회적 변인으로는 모국어성자조모임참여, 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인지여부, 취미학습동아리모임참여, 친목 종교모임참여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내적자원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마련할

* 교신저자(박현우) 전화: 041-530-3053; email: vshyeon@hanmail.net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동 7402호

수 있는 기초를 삼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주요어: 이주여성, 주관적 안녕감

1. 서론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위키 백과사전). '행복'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 중 하나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이윤경, 2008).

주관적 안녕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Szalai(1980)는 개인이 여러 가지 생활상에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 만족감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으로 정의하였고 (전명임, 2008),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보았으며(정현희, 2012), Diener(1984)는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오순옥, 2006).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인에 해당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Diener, 1984;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1999; 양계민, 2010 재

인용).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고 (Kahn & Isen, 1993),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키며(Waugh & Fredrickson, 2006), 낙관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Compton, 2005;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성취, 직업, 결혼 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에 대해 만족할 경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함으로써 낙관주의와 같은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재선, 2009; 양계민, 2010 재인용).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고자 이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현상 '이주의 여성화'는 결혼이주여성 및 여성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 211,458명에 달한다. 충남이 10,254명으로 2위에 달하며 그 중 아산시 1,511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2년 6월의 아산시 읍면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764명에 이르렀다.

저개발국 여성의 입장에서는 모국에서의 실업난과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바라게 되고, 초기 이주비용이 적게 들고 법적,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결혼'을 통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김현미, 2006), 실업이나 가난이라는 이유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삶에 대한 다른 비전이나 희망 때문에 이주를 결심하기도 한다(김정순, 2012). 또한, 이주여성들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혼인을 선택해서 왔으며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자이기도 하다(박주희, 정진경, 2007). 일시적이며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요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송미경, 2008).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 (안준희, 조정희, 2011; 이수진, 2010; 이은혜, 2009; 박주희, 정진경, 2007; 경기가족여성개발원, 2007)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원서진, 송인옥, 2011;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0; 이영분, 이유경, 2010; 이정숙, 2010; 추현화 외, 2008; 김연수, 2007; 권복순, 차보현, 2006; 이은섭, 2002)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박민서, 2011; 류인경, 2010)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항범, 2012; 전주성, 2011; 전미숙, 2010), 양육에 관한 연구들(배경의 외, 2010; 송미경 외, 2008)이 다수 보고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왔으며, 이주여성들의 삶의 현주소와 '한국인'으로서의 적응에 중요성을 두고, 적응을 돕거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인다. 이는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을 통합적 측면에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이은주, 2011; 신형자, 2010; 진호, 2009; 이윤경, 2008; 김유진, 2007. 전귀연, 임주영, 2002; 임주영, 전귀연, 2004)이 다수 보고되어 있지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Campbell, 1976; 이윤경, 2008 재인용),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정현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주여성들의 개별적 자주적 주체적인 인식에 의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변인, 가정적 변인,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의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부분적 적응변인들이 아닌 통합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과 사회적 지원의 방안을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에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2. 최신연구 동향

2.1.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기에는 생활실태와 적응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점차 문화적응스트레스, 결혼생활 만족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원서진, 송인옥,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안준희, 조정희, 2011; 이수진, 2010; 이은혜, 2009; 박주희, 정진경, 2007; 경기가족여성개발원, 2007)을 살펴보면, 문화스트레스 중 향수병과 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력, 종교, 거주기간, 이중 언어사용, 이중문화사용, 부부관계만족도, 남편가족관계 만족도, 우울, 대처전략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어 실력 부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족의 지지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자아분화가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아들이고 문화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원서진, 송인옥, 2011;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0; 이영분, 이유경, 2010; 이정숙, 2010; 추현화 외, 2008; 김연수, 2007; 권복순, 차보현, 2006; 이은섭, 2002)을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의 나이차가 많을수록, 외국인 부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가족가치관이 가족중심적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식적 기관의 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박민서, 2011; 류인경, 2010)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향범, 2012; 전주성, 2011; 전미숙, 2010), 양육에 관한 연구들(배경의 외, 2010; 송미경 외, 2008)을 살펴보면, 높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적응유연성을 지니게 되면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은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는 부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복지기관 이용도는 사회적응을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생활안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남편의 다문화수용 태도, 남편의 모국문화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 모는 가족간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만든다고 지각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부모역할로 '한국에서의 적응 돕기'와 '좋은 부모 되어주기'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은주, 2011; 신형자, 2010; 김유진, 2007)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특성 중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자아탄력성이 아동기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진호,

2009)에서 삶의 만족은 심리적 차원의 변수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지배력, 삶의 목적과 사회적 차원의 변수인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 사회적 실현,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기여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윤경(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및 친구의 사회적 지원 즉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외향적이며 성실한 대학생일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부모자녀관계 효능감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전귀연, 임주영(2002)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3. 분석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주여성과 아산시 소재 어린이집의 이주여성 자모를 중심으로 각 센터 직원과 어린이집 교사, 조사원들의 직접면접을 통한 자기 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총 256명이며 국적별 구성은 중국 79명(30.9%), 베트남 79명(30.9%), 필리핀 44명(17.2%), 일본 29명(11.3%), 그 외 기타나라가 25명(9.8%)이다. 연령별 구성은 20대가 100명(39.1%)으로 가장 많고 30대 94명(36.7%), 40대 55명(21.5%), 50대 이상 7명(2.7%)이다. 학력은 고졸이상과 대졸이상이 각 102명(39.8%) 101명(39.5%)로 비슷한 비율

이고 중졸 44명(172%) 초졸 이하가 9명(3.5%)이다.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 되었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고, 조사내용은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지는 한국어로 작성한 후 아산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의 도움으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일본과 기타나라들은 한국어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했고, 조사원의 직접 면접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개인적 변인에 관한 질문 26문항, 가정적 변인에 관한 질문 25문항, 사회적 변인에 관한 질문 5문항, 주관적 안녕감 척도 질문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2.1. 개인적 변인

개인적 변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인 부부의 나이차, 결혼생활기간, 입국사유, 종교 유무, 경제수준, 취업유무 등에 관한 질문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매우 못한다=1, 못한다=2, 보통이다=3, 잘한다=4, 매우 잘한다=5)과 문화적응정도(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1, 별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2, 보통이다=3, 점차 적응해나가고 있다=4,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5)를 5점 평정척도로 자기평가 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Block과 Ker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유성경(2004)이 변안 후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14개 문항으로 구성, 5점 평정척도(전혀 아니다=1, 조금 아니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이며(김애숙,

2011) Cronbach's $\alpha = .92$ 이다. 입국사유, 종교유무, 취업유무는 더미 변수로 재 코딩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입국사유는 결혼, 취업, 기타로 나뉘었으며 기타를 기준변수로 삼았다. 종교유무는 종교 없음을 기준변수로 삼았으며, 취업 유무는 취업하지 않음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3.2.2. 가정적 변인

가정적 변인은 결혼생활(결혼방식, 결혼이유, 결혼생활만족도), 재산관리의 주체여부, 자녀의 유무, 가정 내 이주여성의 모국어와 모국문화의 이해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생활만족도(매우 불만이다=1, 불만이다=2, 보통이다=3, 만족한다=4, 매우 만족한다=5), 가정 내 이주여성의 모국어와 모국문화의 이해정도(전혀 이해하지 못한다=1, 별로 이해하지 못한다=2, 보통이다=3, 약간 이해한다=4, 매우 잘 이해한다=5)는 5점 평정척도로 자기평가 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양육효능감은 최형성(2001)의 '어머니 양육 효능감 척도'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이나 38개 항목으로 문항이 너무 많으므로 이승미(2004)의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을 제외하고 질문을 재구성하여 총 18문항의 척도로 개발된 5점 평정척도(전혀 아니다=1, 조금 아니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한지은, 2007)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4$ 이다. 결혼방식, 결혼이유, 자녀유무, 재산관리주체 등은 더미변수로 재 코딩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결혼방식은 중개업, 지인소개, 타인소개없이, 기타로 나뉘었고 기타를 기준변수로 삼았다. 결혼이유는 사랑해서, 경제적 보탬을 위해, 종교적 이유, 기타로 나뉘었고 기타를 기준변수로 삼았다. 자녀유무는 자녀없음을 기준변수로 삼았으며, 재산관리주체는 아내 외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3.2.3. 사회적 변인

사회적 변인으로는 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인지여부,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서비스이용경험의 정도, 사회적 참여모임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참여모임의 내용은 더미변수로 재 코딩하여 회귀 분석하였으며 취미학습동아리, 친목 종교모임, 모국여성자조모임으로 나뉘었고 기타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3.2.4.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정서질문지(Positive and Negative Affect: PANAS)와 삶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로 구성이 되었다. 정서질문지는 Watson, Clark 및 Tellegen(1988)이 제작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척도를 이주성(199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긍정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와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가 무선적으로 배치되어있으며 5점 척도(전혀 느끼지 않는다=1, 조금 느낀다=2, 보통이다=3, 많이 느낀다=4, 매우 많이 느낀다=5)를 사용하였다(정현희, 2012). 부정정서의 Cronbach's $\alpha = .87$ 이며 긍정정서의 Cronbach's $\alpha = .82$ 이다.

삶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일반인들의 삶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류연지(1996)가 SWLS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 5점 평정척도(전혀 아니다=1, 조금 아니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이며(정현희, 2012), Cronbach's $\alpha = .84$ 이다. 전체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 .84$ 이며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위해 명목 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의 변인들을 더미변수로 재 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변인, 가정적 변인, 사회적 변인들의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변인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변인의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부의 나이차는 최대값은 30이며 평균적으로 남편이 10.23년 연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부부의 평균 연령차가 9.5세이며 한국인 부부의 2.2세에 비해 크게 웃돈다고 보고한 2012년 통계청의 자료와 유사한 결과이다. 결혼기간은 8년 이상이 118명(46.1%)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이하가 52명(20.3%), 4년 이상 5년 이하가 36명(14.1%)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산시의 통계연보(2012)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이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 크게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95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

만도 26명(10.2%)로 연구대상자의 절반가량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2009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경제수준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38.4%이며 100만원 미만이 21.3%로 유사한 결과이다. 결혼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202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생활은 175명(68.4%)이 하고 있으며, 149명(58.2%)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평정척도인 한국어능력, 자아탄력성, 한국문화적응정도는 각각 평균 3.29, 3.37, 3.70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문화적응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부나이차이	10.23	6.72	0	30
한국어능력	3.29	.84	1.00	5.00
자아탄력성	3.37	.60	1.86	5.00
한국문화적응	3.70	.95	1.00	5.00
구분	빈도	%		
결혼생활기간				
1년 이내	16	6.3		
2년 이상 3년 이하	52	20.3		
4년 이상 5년 이하	36	14.0		
6년 이상 7년 이하	34	13.3		
8년 이상	118	46.1		
경제수준				
100만원 미만	26	10.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5	37.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1	31.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7	14.5
400만원 이상	17	6.6
<hr/>		
입국이유		
결혼	202	78.9
취업	13	5.1
기타	41	16.0
<hr/>		
종교		
유	175	68.4
무	81	31.6
<hr/>		
취업		
유	107	41.8
무	149	58.2
<hr/>		

4.1.2 연구대상자의 가정적 변인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가정적 변인의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혼 방식은 지인의 소개를 통한 방법이 99명(38.7%)으로 결혼중개업을 통한 방법인 77명(3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 소개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37명(14.5%)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유로는 사랑하기 때문이 99명(38.7%)으로 경제적 이유 58명(18.8%)이나 종교적 이유 28명(10.5%)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산관리여부는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는 34명(13.3%)으로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인 222명(86.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221명(86.3%)이 자녀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5점 평정척도인 가정 내에서의 이주여성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와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정도, 결혼만족도,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각각 2.98, 3.17, 3.46, 3.51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에서의 이주여성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와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정도가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양육효능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가정적 변인 특성

구분	빈도	%		
결혼방식				
결혼중개업을 통해	77	30.1		
지인의 소개로	99	38.1		
타인의 소개 없이	37	14.4		
기타	43	16.8		
결혼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99	38.7		
경제적 이유	58	22.7		
종교적 이유	28	10.9		
기타	71	27.7		
재산관리				
아내가	34	13.3		
다른 사람이	222	86.7		
자녀				
유	221	86.3		
무	35	13.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결혼생활만족	3.46	.95	1.00	5.00
남편의 아내 모국어이해	2.98	1.17	1.00	5.00
남편의 아내 모국문화이해	3.17	1.10	1.00	5.00
양육효능감	3.51	.66	1.83	5.00

4.1.3.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변인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변인의 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복지 서비스 혹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한 질문은 해당 기관에서의 일자리알선, 공공기관에서의 생계 의료지원과 생활정보제공, 가정폭력시 대처 및 경찰의 보호, 여성긴급전화, 긴급상담 및 보호 지원, 보건

소에서 건강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의 보육지원, 기관의 상담서비스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2개 이상 4개미만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98명(38.3%)로 가장 많았으며 1개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명(28.5%)이며 절반 이상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여성관련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등)로부터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의 정도는 1개 이하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124명(48.4%)이고 2개,3개는 62명(24.2%)으로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취미 학습동아리 63명(34.6%), 모국여성자조모임 39명(27.0%), 친목 종교모임 38명(26.6%)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변인 특성

구분	빈도	%
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인지도		
1개 이상 2개미만	73	28.5
2개 이상 4개미만	98	38.3
4개 이상 6개미만	46	18.0
6개 이상 8개미만	15	5.8
8개 이상	24	9.4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서비스 경험정도		
1개 이하	124	48.4
2개 이상	132	51.6
모임참여형태		
취미, 학습 동아리모임	63	24.6
친목, 종교모임	68	26.6
모국여성자조모임	69	26.9
기타	56	21.9

4.1.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정서, 부정 정서, 삶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은 각각 3.09, 3.47, 3.08이며 부정정서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은 3.24이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안녕감	3.2466	.41191	2.04	4.56
정적정서	3.0992	.53188	1.60	4.60
부적정서	3.4742	.62078	1.30	5.00
삶만족도	3.0859	.75820	1.00	5.00

4.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4.2.1. 개인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다.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r=.579$)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한국문화적응($r=.412$), 경제수준($r=.356$), 한국어능력($r=.344$)등이 다소 상관을 보이며 종교유무, 결혼생활기간, 취업유무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입국이유 취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변인들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입국이유 결혼과 나이차는 대부분의 변인들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결혼생활기간은 한국어능력($r=.511$)과 한국문화적응($r=.207$)에서 차이를 보였고, 경제수준은 한국문화적응($r=.328$), 한국어능력($r=.333$)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국어능력($r=.438$)과 결혼생활기간($r=.392$)은 취업유무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한국문화적응($r=.407$)과 한

국어 능력($r=.365$)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나이차($r=-.174$) 와 결혼이유-입국($r=-.22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과 한국어능력($r=.601$)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219**	1								
3	-.083	-.650**	1							
4	.004	.101	-.077	1						
5	-.471**	-.040	.085	.243**	1					
6	-.221**	-.329**	.280**	-.072	.138*	1				
7	-.213**	-.183**	.266**	.185**	.438**	.112	1			
8	-.195**	-.185**	.135*	-.057	.207**	.328**	.186**	1		
9	-.337**	-.219**	.265**	.085	.511**	.333**	.392**	.601**	1	
10	-.174**	-.225**	.146*	-.006	.199**	.256**	.149*	.407**	.365**	1
11	-.197**	-.326**	.249**	-.023	.072	.356**	.097	.412**	.344**	.579**

** $p<0.01$ * $p<0.05$

1.나이차이 2.입국이유-결혼 3.입국이유-취업 4.종교유무 5.결혼생활기간 6.경제수준 7.취업유무 8.한국문화적응 9.한국어능력 10.자아탄력성 11. 주관적안녕감

4.2.2. 가정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6〉에서 보는바와 같다. 주관적 안녕감과 남편과의 결혼만족도($r=.483$), 양육효능감($r=.464$), 결혼이유-사랑하기 때문에($r=.413$), 결혼방식- 타인의 소개없이($r=.412$)등의 변인들이 다소 높은 상관을 보인다. 남편의 아내 모국어이해정도와 모국문화이해정도는 결혼방식-중개업과는 각 $r = -.349$ -.278의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결혼방식-

타인의 소개없이와는 각 $r = .253 \sim .351$ 로 정적상관을 보인다. 결혼이유-가족에게 경제적 보탬의 변인은 결혼방식-중개업 변인과 높은 상관($r = .500$)을 보이고, 결혼이유-사랑하기 때문에 변인은 결혼방식-타인의 소개없이 변인과 다소 높은 상관($r = .426$)을 보인다. 남편의 아내모국어 이해정도($r = .385$)와 모국문화이해정도($r = .429$)는 결혼생활만족과 다소 높은 상관이 있는 반면 결혼이유-가족에게 경제적 보탬 변인($r = .301$)은 결혼생활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남편의 아내 모국어 이해 정도와 모국문화이해정도가 가장 높은 상관($r = .690$)을 보였다.

〈표 6〉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21**	1										
3	-.270**	-.326**	1									
4	-.398**	.094	.426**	1								
5	.500**	-.181**	-.169**	-.430**	1							
6	-.230**	-.175**	-.144*	-.278**	-.190**	1						
7	-.349**	.114	.253**	.279**	-.249**	.091	1					
8	-.278**	-.005	.351**	.345**	-.303**	.106	.690**	1				
9	-.245**	.023	.247**	.354**	-.301**	.016	.385**	.429**	1			
10	-.037	.012	.034	-.058	-.029	.030	-.044	-.053	-.096	1		
11	-.081	-.098	.166**	.138*	-.129*	.047	-.015	.066	-.007	.156*	1	
12	-.280**	.128*	.269**	.329**	-.205**	-.100	.278**	.327**	.234**	-.006	.079	1
13	-.257**	-.072	.412**	.413**	-.308**	-.001	.348**	.384**	.483**	-.087	.157*	.464**

** $p < 0.01$ * $p < 0.05$

1.결혼방식-결혼중개업 2.결혼방식-지인의소개로 3.결혼방식-타인의 소개없이 4.결혼이유-사랑하기 때문에 5.결혼이유-가족에게 경제적 보탬 6.결혼이유-종교적인이유로 7.남편의 아내 모국어이해 8.남편의 아내 모국문화이해 9.결혼생활만족정도 10.자녀유무 11.재산관리 주체 12.양육효능감 13.주관적안녕감

4.2.3. 사회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회적 변인들은 다소 낮은 상관들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는 서비스 이용경험의 정도($r = .248$)와 주관적 안녕감($r = .274$)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모국여성자조모임이 서비스이용경험의 정도($r = .272$)와 주관적 안녕감($r = .189$)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7>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1	1				
2	-.101	1			
3	.081	-.344**	1		
4	.108	-.347**	-.365**	1	
5	.248**	-.045	-.072	.272**	1
6	.274**	.037	.004	.189**	.155*

** $p < 0.01$ * $p < 0.05$

1.복지서비스 및 제도 2.취미, 학습 동아리모임 3.친목, 종교모임 4.모국여성자조모임 5.도움이 된 서비스 6.주관적안녕감

4.3. 회귀분석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입력방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고, 분산팽창요인 (VIF)이 모든 변인들에서 4.0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회귀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3.1.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개인적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8>에서 보는바와 같다. 회귀함수는 전체의 약44%를 설명($R^2 = .439$)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모델 검정($F=19.177$ $p = .000$)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beta = .452$) 결혼생활기간($\beta = -.148$) 한국문화적응($\beta = .141$) 경제수준($\beta = .130$)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결혼생활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 나이차이, 입국이유, 종교유무, 취업유무, 한국어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주관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1.991	.162		12.261	.000		
부부나이차이	-.006	.004	-.091	-1.586	.114	1.428	
개인적 변인	입국이유						
	결혼	-.096	.067	-.095	-1.425	.155	1.953
	취업	.090	.090	.066	1.004	.316	1.908
	종교유무	.044	.045	.049	.970	.333	1.125
	결혼생활기간	-.044	.020	-.148	-2.249	.025	1.884
	취업유무	-.030	.047	-.035	-.630	.529	1.385
	경제수준	.051	.021	.130	2.393	.017	1.283
	한국문화적응	.062	.028	.141	2.216	.028	1.776
	자아탄력성	.312	.037	.452	8.362	.000	1.275
	한국어능력	.033	.036	.067	.919	.359	2.302

$R=.663, R^2=.439, F=19.177(p=.000)$

4.3.2.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가정적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회귀선은 전체의 45%를 설명($R^2 = .454$)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모델 검정($F=16.86$ $p = .000$)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beta = .298$) 남편과의 결혼생활만족($\beta = .288$) 결혼방식- 타인의 소개없이($\beta = .179$) 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인의 소개없이 결혼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개업이나 지인의 소개방식으로 결혼한 경우와 결혼이유, 남편의 이주여성 모국어이해도와 모국문화이해정도, 자녀유무, 재산관리여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가정적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오차	β			
(상수)	2.106	.159		13.248	.000	
결혼방식						
결혼중개업	.042	.085	.047	.501	.617	3.959
지인의소개로	-.041	.073	-.049	-.564	.573	3.343
타인의 소개없이	.209	.088	.179	2.387	.018	2.509
결혼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094	.057	.111	1.639	.103	2.045
가족에게경제적보탬	-.078	.059	-.079	-1.324	.187	1.601
종교적인이유로	.080	.094	.061	.858	.392	2.252
남편의아내 모국어이해	.033	.024	.095	1.388	.166	2.069
남편의아내 모국문화이해	-.011	.027	-.031	-.426	.670	2.303
결혼생활만족정도	.125	.024	.288	5.205	.000	1.363
자녀유무	-.084	.058	-.070	-1.443	.150	1.049
재산관리주체	.110	.060	.091	1.827	.069	1.094
양육효능감	.185	.033	.298	5.618	.000	1.250

$R=.674, R^2=.454, F=16.86(p=.000)$

4.3.3.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사회적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다. 회귀선은 전체의 약 14%를 설명($R^2 = .136$)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모델 검정($F=7.884$ $P = .000$)으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모국여성자조모임($\beta = .293$)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알고있는 정도($\beta = .242$) 취미 학습동아리모임참여($\beta = .223$) 친목 종교모임참여($\beta = .171$)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가 많을수록, 모국여성자조모임, 취미 학습동아리모임, 친목 종교모임 등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경험의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b	표준 오차	β			
(상수)	2.843	.090		31.599	.000	
복지서비스 및 제도	.082	.021	.242	3.946	.000	1.085
모임참여형태						
취미, 학습동아리모임	.213	.071	.223	2.988	.003	1.614
친목, 종교모임	.159	.070	.171	2.262	.025	1.650
모국여성자조모임	.271	.072	.293	3.750	.000	1.763
도움이 된 서비스	.031	.052	.038	.596	.552	1.148

$R = .369$, $R^2 = .136$, $F = 7.884(p = .000)$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개인적 변인, 가정적 변인,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해봄으로써 이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요인들을 찾아보고자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의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 한국문화적응정도,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정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높아지며, 결혼생활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진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김유진(2007), 신형자(2010)의 연구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으며 문화적응정도 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원서진, 송인욱(2011)의 연구와 월평균소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류인경(2010)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적응정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요인이지만 한국어 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이는 언어의 미숙함보다 문화적 이질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기가족여성개발원(2007) 이수진(2010)의 연구에서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언어상의 문제'라고 보고하였으나 생활에서의 언어적 불편함이 주관적 안녕감과 반드시 유의한 관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이주여성의 가정적 변인들 중에서는 양육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 남편과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 송미경 외(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 모는 언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며, 부모역할로 '한국에서의 적응돕기'와 '좋은 부모 되어주기'라고 꼽는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역할이 이주여성들의 생활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생활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아내 모국어이해도와 모국문화이해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도움이나 환경보다 더 유의한 것은 주체적으로 느끼는 결혼생활의 만족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남편의 협력과 결혼생활만족도가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이은혜(2009)의 연구와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부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항범(201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는 한편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다문화수용태도라고 보고한 전미숙(2010)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결혼 방식에서 결혼 중개업과 지인의 소개로 인한 결혼 방식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타인의 소개없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성(2011)의 연구에서 서술한바 중개업을 통한 결혼은 일정부분 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성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자유연애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이들은 단순히 세계화의 일방적인 작용의 결과가 아닌 여성 개인의 글로벌에 대한 욕망과의 조우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주여성의 사회적 변인들 중에서는 모국여성자조모임의 참여여부가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gdol(2002)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욱 의존적인 성향이 있으며,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 강한 결속이 깨어짐에 따라 여성의 심리적

취약성이 크다고 밝힌바와 같이 낮은 나라에서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국여성들의 자조모임이 이들에게 큰 심리적 위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취미, 학습 동아리 모임과 친목, 종교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들로부터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의 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 기관의 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2010)의 연구결과와 복지기관의 이용도는 사회적응을 위한 경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항범(2012)의 연구들에서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동화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볼 때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도움 보다는 이주여성의 주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자아탄력성, 한국문화적응정도, 결혼생활기간, 경제수준, 양육효능감, 남편과의 결혼생활만족정도, 타인의 소개없는 결혼방식, 모국여성자조모임참여, 복지서비스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취미 학습동아리모임참여, 친목 종교모임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에서 나타나는 바 이주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에는 객관적 상황 및 조건이나 외부적 도움과 지지로 인한 환경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이루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송미경(2008)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낮은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용기이며 도전의식이며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이며 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응능력을 포함한 많은 내적자원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실에 대한 좌절로 그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강점을 적극적으로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덧붙여 ‘한국인’으로 빨리 적응하여 생활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체성을 잃지 않은 자기 확장적 인식이고 의지이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서비스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수성과 제한적 접근성으로 인해 충청남도 아산지역의 이주여성을 편의표집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여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변인들로 나누어 보았고 각각의 변인들의 회귀분석을 위하여 일부 질적 변수들을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가 다른 변인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회귀분석을 하였다는 것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들이 다양하고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인들임으로 인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로 일관성 있게 볼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이는 차후에 더욱 객관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한계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변인들이 이주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보고자 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여성들의 현 상황을 각각의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함에 있다.

이주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에는 자아탄력성, 양육효능감, 모국여성들의 자조모임의 참여 여부가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이들의 심리적 건강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송미경, 2008). 이들이 연대를 이루어 서로의 건강한 심리적 자원을 지지해주고 타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과제로 주어진다.

■ 참고 문헌 ■

-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65-179.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애숙 (2011). *병원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및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유진 (2007). *학교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에 대한 보호요소의 설명력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 김정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숙, 김희재, 오중환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류인경 (2010).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내적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민서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1(5), 393-402.
- 박주희 ·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12(4), 395-432.
- 배경의 외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16(3), 175-183.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다문화 가족통계현황*
- 송미경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여성연구논총*, 23, 41-51.
- 송미경 외 (2008). 다문화 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형자 (2010). *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아산시 통계연보 (2012). 인구현황
- 안준희·조정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1), 137-176.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4(1), 111-128.
- 오순옥 (2006).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원서진·송인옥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위키백과사전 ko.wikipedia.org/wiki, 2013.02.15
- 유성경·홍세희·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이수진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정도와 부부관계 만족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승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영분·이유경 (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45-157.
- 이윤경 (2008).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성격,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은섭 (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이은주 (20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은혜 (2009).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

학교 대학원.

- 이주성 (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이향범 (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결혼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임주영,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배우자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87
- 전귀연, 임주영 (2002). 노인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73~191
- 전명임 (2008).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전미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배우자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전주성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과 학습. 그리고 홀로서기: 내러티브 분석. *한국성인교육학회*, 14(4), 1-25.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가족여성개발원*.
- 정현희 (2012). *상담자의 완벽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진호 (2009). *방송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5~15.
- 추현화 외 (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통계청 (2012). *다문화가정현황*
- 한지은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지지 정도가 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조사
- Campbell, A., Convers,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Kahn, B. E. & Isen, A. M. (1993).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variety seeking among safe, enjoyable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257-270.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Magdol, L. (2002). Is Moving Gendered? The Effects of Residential Mobilit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en and Women. *Sex roles*, 47, 553-560.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 Research*, 24, 1-34.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 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Received 17 March 2013; Revised 23 May 2013; Accepted 5 June 2013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Well-Being of Immigrant Wives

Hyeon-woo Nam · Hyeon-woo Park · You-young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Sinchang, Asan City, Chungna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ubjective well-being of immigrant wives in Korea. We initially grouped the factors into 3 categories: personal, domestic, and social. For personal factors, we included couple's age difference, reason for entry, religion, marital duration, employment status, economical status,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acquisition of Korean language, and ego-resiliency. For domestic factors we included marriage process, reason for marriage, husbands' understanding of wife's native language, husbands' understanding of wife's culture, marital satisfaction, existence of children, head of the household, and parenting efficacy. Finally for social factors, awareness of welfare services and systems, use of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groups were included. We recruited 256 immigrant wives who live in Asan City, Chungnam Province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factor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ego-resiliency, marital duration,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and economic status among personal factors; parenting 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marriage process (married without a matchmaker) among domestic factors;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 of women from the same

mother country, awareness of welfare services and systems, participation in hobby club, and participation in fraternal/religious society among social factor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yield general insights into subjective well-being of immigrant wives and may help them to develop inner talent and strength.

key words : Migrant Women, Subjective Well-being



Hyeon Woo Bak is a graduate student of doctor course in Youth Counseling of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nam,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youth counseling and immigrant wives in Korea.

Address: (336-745) 22 SoonChunHyang-ro, Asan City,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vshyeon@hanmail.net



You Young Kim is a graduate student of master course in Youth Counseling of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nam,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youth counseling and immigrant wives in Korea.

Address: (336-745) 22 SoonChunHyang-ro, Asan City,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kyy0725@gmail.com



Hyun Woo Nam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 Counseling in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ungnam,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al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ology, psychological testing.

Address: (336-745) 22 SoonChunHyang-ro, Asan City,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namhw@sch.ac.kr